

번호 17-2

제 목	국문	의대생과 한의대생의 전문적 사회화 과정 비교연구			
	영문	Comparative Study on the Professional Socialization between the Western and the Oriental Medical Students			
저 자 및 소 속	국문	임병목, 이원영, 우석균, 조병희*, 김창엽, 김용익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관리학교실, 계명대 사회학과*			
	영문	Byung Mook Lim, Won Young Lee, Seok Kyun Woo, Byung Hee Cho*, Chang Yup Kim, Yong Ik Kim Dep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Dept. of Sociology, College of Social Sciences, Keimyung University*			
분 야	보건관리 (○) 역 학 ( ) 환 경 ( )	발 표 자	일반회원 (○) 전 공 의 ( )	발표 형식	구 연 (○) 포스터 ( )
	진행 상황 연구완료( ), 연구중(○) → 완료 예정 시기 : 1999년 10월				

1. 연구 목적

전문적 지식과 자율적 통제기전, 그리고 대중에 대한 권위는 전문직을 다른 직업과 구분되게 하는 것으로 그 중 전문적 지식의 독점은 전문직의 존재에 가장 중요한 근거가 된다. 앞서 연구된 바에 의하면 한의사는 자연과학적 지식체계가 아닌 전통적 지식과 방법론을 따르고 있음에도 자신의 영역에 대한 부분적 독점에 성공하였고, 일정하게 전문직으로서의 집단적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어떤 과정이 전문직으로서의 사회화에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지 그리고 그 과정은 의사들과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다. 근래 임상과 기초 등 여러 분야에서 동·서의학의 교류와 협력이 추구하고 있는 가운데 협력의 성과는 제도적 조건 이상으로 협력당사자들의 행태와 의식구조에 좌우될 것이다. 따라서 바람직한 협력의 형태를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의사와 한의사가 교육을 통한 사회화과정을 거치면서 어떻게 의식구조가 변화하고 형성하는지를 비교·분석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한의대생들의 의료·사회현상에 대한 가치관과 행동양식 및 전문직으로서의 구성요건에 대해 조사하며, 둘째 한의대생들의 의료에 대한 가치관 및 행동양식이 한의학교육과정을 통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파악하며, 셋째, 그러한 가치관과 행동양식이 의대생과 한의대생간에 어떤 차이를 보이고 있는지를 규명하고자 한다.

2. 연구 방법

전국 11개 한의과대학의 전학년 학생들에 대해 전문적 사회화에 대한 구조화된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배포한 후 수집하였다. 설문에 응한 2610명 중 설문기입을 인적사항 기입 정도에 그친 13명을 제외한 2597명을 분석대상으로 삼았다.

설문지는 1996년 한달선 등의 논문에서 개발하여 의대생을 대상으로 사용하였던 것을 이용하였는데, 일부 문항들이 한의대생과 관련된 내용으로 수정되거나 추가되었다. 조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각 변수들에 대한 빈도분석을 하였다.

요인분석을 통해 전문직이념과 전문직업성을 구성하는 요인을 재구성한 후 분산분석을 통해 전문직이념과 전문직업성의 학년별 변화추세를 분석하였으며, 전문직이념과 전문직업성의 요인 변수를 종속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각 분석결과를 한달선 등의 논문에 제시된 의대생들에 대한 분석결과와 비교 고찰하였다.

### 3. 연구 결과

1) 한의대생의 일반적 특징은 대부분 대도시 출신(61.6%)이나, 의대생(71.2%)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이며, 종교는 의대생의 경우 기독교(28.7%)가 가장 많은데 비해, 한의대생은 불교(19.5%)를 가장 많이 믿고 있었다. 주관적 생활수준은 중상 이상이 14.4%로 의대생(34.1%) 보다 낮은 편이었으며, 부모의 직업은 의대생과 비슷하게 전문관리직이 가장 많았다.

2) 전문직이념에 대한 요인변수는 Shuval이 구조화한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한의대생의 경우 인간요인, 과학요인, 지위요인으로 구성되어 지위요인을 대내지위와 대외지위로 나누었던 의대생연구 보다 Shuval의 기준에 가깝게 일치하였다. 전문직업성에 대한 요인변수는 임상자율성, 정책자율성, 전문적 독점, 생윤리, 직업윤리 등 5가지로 설정되었는데 이는 의대생연구의 요인과 달리 전문적 지배와 심성요인이 설정되지 못했다. 각 요인변수별 문항구성도 일부 차이를 보였다.

3) 요인별 표준화평균을 환산하면 전문직이념에서 한의대생들은 인간요인(3.61)을 가장 중요하였으며, 지위요인을 상대적으로 낮게 인식하여서 의대생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전문직업성에서는 의대생과 마찬가지로 직업윤리(4.23)를 가장 중시하였으나, 의대생이 가장 적은 중요도를 보인 독점요인에 대해 한의대생은 유의하게 높은 비중(4.04)을 두고 있었으며 의대생에서 높은 비중으로 나타났던 생윤리에 대해 한의대생은 가장 낮은 중요도(3.39)를 보였다.

4) 학년별 요인변수의 분산분석을 통해 사회화과정의 진전에 따라 전문직이념과 전문직업성이 변화하는가를 조사한 결과 전문직이념에서는 지위요인만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유의하게 평균치가 상승하였다. 전문직업성에서는 임상자율성, 전문적 독점, 생윤리의 요인들이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평균치가 상승하여 학년에 따른 인식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의대생의 경우 자율성, 지배, 독점의 요인들에서 학년이 올라갈수록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 4. 고찰

본 연구는 한의대생이 바람직한 의사가 되기 위한 조건인 전문직이념에 대해 의대생과 유사한 인식을 갖고 있으나, 전문직에 대한 가치의 측면인 전문직업성에 대해서는 일정한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주었다. 그 차이는 한의사가 갖는 사회적, 직능적 입장이 예기적 사회화의 형태로 한의대생들에게 이입된 데 따른 것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어 독점의 욕구가 높은 것은 한약 조제권분쟁과 같이 업무영역의 분화가 불완전하여 나타났던 다른 직능과의 심각한 갈등관계를 반영하는 것이다. 생윤리에 대한 의식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 것은 의료윤리에 해당하는 설문으로 제시되었던 안락사허용이나 미혼모의 임신중절과 같은 문제가 한의사의 업무와는 다소 거리가 먼 측면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의 주된 제한점은 첫째, 전문직업성을 파악하기 위한 설문문항이 아직 충분히 표준화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때문에 요인추출 결과에 의대생과 한의대생간의 차이가 발생한 것이 설문지의 타당성에 기인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대생과 한의대생의 사회화과정의 차이 때문인지가 불분명하다는 문제를 안고 있다. 두 번째, 연구내용이 학부교육기간에 사회화에 한정되어 환자 진료 이후의 사회화과정에 대한 고려가 없다는 점이다. 이점들에 대해선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